선생님들을 위한 인권수업 자료

선생님,
혐오표현이 뭐예요?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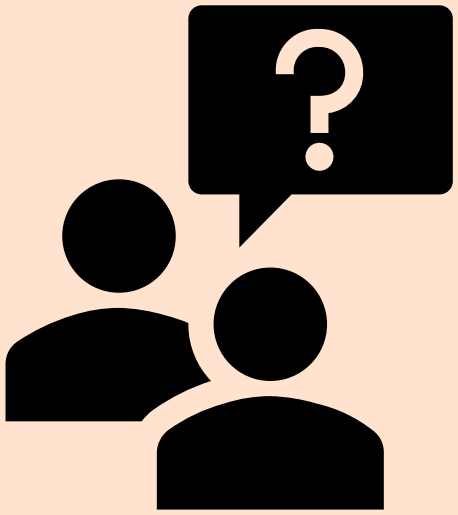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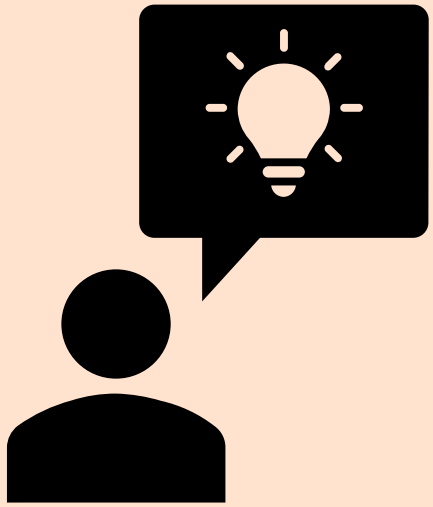
❶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❷ 차별 ·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 조장 ·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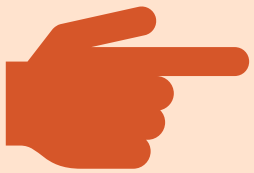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혐오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주세요.”



“말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혐오표현의 형태는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혐오표현인가 보다
혐오표현의 ‘특징’ 입니다.”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 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 을 바탕으로

말, 글, 몸짓, 기호 등의 표현 을 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 를 가져오는 것

“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거지.”

“다문화 애들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엉망이야.”

“장애인들은 특수학교에 가야지.”

“외국인 많은 동네는 아무래도 좀 더럽고 위험하더라.”

국가인권위원회

“에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학교에서 누가 저런
혐오표현을 하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

한 학생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때, 교사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 장애(게이)냐?"

A) "나쁜 말 쓰면 안돼."

B) "너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C) "친구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A, B, C
모두 아닙니다!

학생이 친구를 향해 '장애/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놀림과 비하의 표현입니다.
친구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수자'에 빗대어
놀림과 비하의 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단순히 놀리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에 그치기 보다
그것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혐오표현'이라는 점을 짚어주어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말해봅시다!

"너 장애(게이)냐?"

"그건 혐오표현이야.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를 빗대어
놀리는 말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야."

국가인권위원회

수업이 끝나고 교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말, 괜찮을까요?

"우리반 다문화, 걔 있잖아.
오늘도 사고 하나 쳤어."

A) "어휴, 그런 애들이 뻔하지 뭐.
엄마가 말도 안 통하니까
케어도 잘 안되고, 애들도 거칠고
폭력적이더라고. ."

B) "학교에 점점
다문화 애들이 늘어나서 큰일이야.
교사하기 힘들다."

국가인권위원회

푸념이 아닙니다.
혐오표현입니다!

우리가 학생의 개인정보나 배경을 파악하는 이유는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다문화'와 같은 학생의 배경에 대한 용어를
그들을 위한 교육적 조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건 그냥 의미 없는 말일 뿐이죠.

실제 당사자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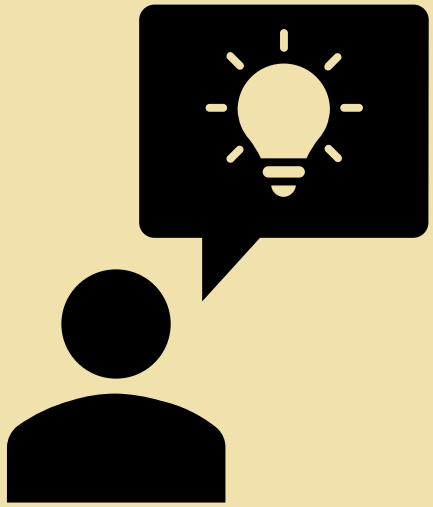
동아리에서 친구들이 트랜스젠더 이야기가 나오니까 '트랜스포머'냐면서 웃어요. 제 존재가 처참히 없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교과서에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과 자유를 주장했지만, 사회적 약자인 저는 항상 없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경험을 자주 했어요. 무력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대학교에 갔을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우리의 뇌는
물리적 폭력과 사회적 따돌림을 같은 뇌 부위에서 인식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그들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욕과 차별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중에서 발췌,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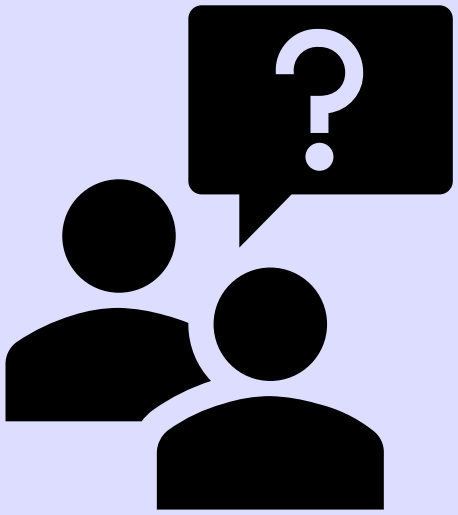


학교 안 혐오표현은
안전하지 못한 학교 환경을 조성합니다.

당사자 학생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움을 경험하기 힘들어집니다.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된 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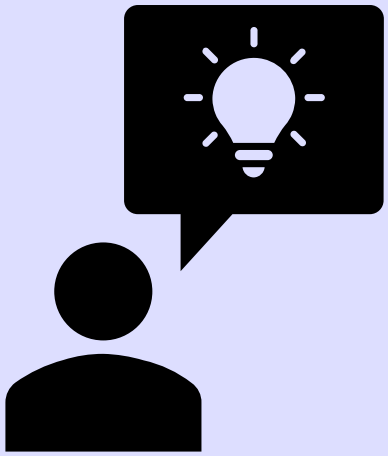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쓰지 말라고 해서 해결되나요?
낱말만 바꾸는 경우도 많은걸요.

학교 안의 혐오표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



물론, 학생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큰 교사가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선생님의 1년은 어떠셨나요?

선생님의 교실, 학교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나요?

올해를 돌아보며 함께 생각해보아요.

수업 장면에서 되돌아보기

- [x] 수업에 활용하는 동영상이나 자료에 인종, 성, 타 문화, 장애 등 소수자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 [ ] 수업 자료, 내용이 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수업의 내용이나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인종, 성, 타 문화, 장애 등 소수자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업 외 장면에서 되돌아보기

- [x] 학교의 행사(체험학습, 운동회 등) 계획에 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학교 내 게시물, 홈페이지 등에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 [ ] 학교 내에서 교사의 공식적/비공식적 발언이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3가지 방법!

1. 모르는 척 하지 않기
2. 단호하게 대처하기
3. 함께 이야기하기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혐오표현에 대항해주세요.

혐오로부터 안전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함께 만들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자료 제작>

<사용한 글꼴> 경기천년체, 배달의민족 주아체

<참고자료>

-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 온라인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